LOCAL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여름의 시작… 강진서 '보랏빛 꽃물결' 즐긴다

군, 20~22일 작천 부흥마을서 '코끼리마늘꽃 3 Days'

강진원 군수 "자연·정서 체감… 명소·특산물 홍보도"

6월 중순을 넘어서며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보랏빛 꽃물결이 강진 시골마을을 뒤덮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작천면 부흥마을 일원에서 '제2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행사가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이 활짝 핀 부흥마을 일대를 배경 삼아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꽃단지 정원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과 농촌만의 따뜻한 정서를 가득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ha 규모의 재배단지에는 코끼리마늘꽃뿐 아니라 메밀, 버들마편초, 장미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꽃밭 곳곳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과 쉼터가 마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행사장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판매 부스와 음식 부스가 자리잡는다. 판매 부스에서는 부흥마을에서 생산한 쌀, 감자, 고사리, 오디, 옥수수 등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닭개장과 콩국수, 오리날개튀김, 홍어삼합 등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 주는 서비스부터 족욕 체험(1인당 1만원), 감자 캐기 체험(1인당 5000원)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이밖에 하멜촌커피 부스에서는 SNS에 인증사진을 올릴 경우 룰렛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과 작천면 부흥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주민주도형 행사다.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지역의 먹거리와 특산물, 체험을 모두 아우르는 특별한 행사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코끼리마늘꽃을 통해 작천을 비롯해 강진군의 수많은 명소와 특산물들을 전국에 알리고 싶다"며 "관광객들이 강진의 자연과 정서를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24일 지역사회 공론의 장 마련

영암군은 오는 24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영암경찰서가 이전하고 난 뒤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토론회의 큰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자원 재조명, 영암군민 공공복합공간 등으로 잡고 있다.

토론회는 영암군민과 전문가,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전문가 6명 안건 토론, 2부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영암군민의 필요와 관심을 이전부지 조성에 폭넓게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즐기는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사·문화·체험 등 영암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목포, 마약류 취급소 자율점검

법령 준수·책임의식 제고 등

목포시보건소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앞두고 마약류 취급자의 법령 준수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과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병·의원 113개소, 약국 114개소, 마약류 도매상 6개소 등 총 232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각 업소 대표자가 점검표를 바탕으로 항목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자체 개선한 뒤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보고의 적정 여부, 실재고량과 보고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의 변질·유통기한 경과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표는 목포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https://moaform.com/q/urI6hi)를 통해 대표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영화 '호프' 테마 문화의 거리 조성

남창리 일원에 70~80년대 재현… 역사문화 관광기반 구축

해남군은 북평면 남창리 일원을 영화 '호프' 테마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남창리 일원은 완도군과 맞닿은 북평면의 소재지로, 1555년 달량진왜변 이후 이곳에 곡식 창고인 남창을 둬 남창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임진왜란의 전초전이라 평가되는 달량진왜변이 발발한 역사적 현장이자 제주를 오가는 배가 폭풍을 피해 잠시 정박하는 해상통로로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

왜구를 막기 위한 달량진 성벽과 바다를 조망하는 해월루 등 역사문화자원이 재정비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해변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땅끝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 이진마을의 이진성지와 북평 용줄다리기 놀이, 남창 오일시장 등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문화의 거리 조성은 최근 남창에서 진행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와 연계해 추진한다.

영화 '호프'는 지난해 북평면 남창리 거리를 세트장으로 조성해 촬영됐으며,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영화 배경인 1970~80년대 거리를 연출하고, 주요 촬영지에 위치한 상점 전면과 간판을 영화 촬영 당시로 복원해 복고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 남창의 역사와 영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 옛 북평면사무소 건물을 원형으로 복원해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다 다채롭게 즐길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북평면 남창리 해월루 일원 전경

현재 북평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평면 일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특별한 장소로 꼽혀 왔다"며 "영화 촬영을 계기로 이러한 특성을 더욱 살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나주, 세지면 대산지구 정비사업 확정

50억 확보… 돈사 철거로 악취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나주시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을 재정비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세지면 대산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내 난개발 요소인 축사, 폐가, 공장 등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를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함으로써 정주환경을 회복한다.

이번 선정으로 세지면 대산리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대규모 돈사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귀농, 귀촌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의 기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2022년 노안면 금안마을을 시작으로 2023년 문평면 오룬마을, 2024년 봉황면 죽석마을에 이어 이번 세지면 대산지구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업 대상지인 대산지구는 반경 500m 내에 용산마을 등 3개 마을이 인접해 있고 세지면 소재지에서도 약 2㎞ 거리에 위치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시는 대산리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 1개소(7동, 2266.5㎡)를 포함해 총 8278㎡(약 2505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철거 부지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자연 생태복원 기간을 거치고 장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